

사찰·스님 늘고 사미·사미니는 줄어

조계종 2006 통계자료 공개

2005년에 비해 2006년 조계종 사찰과 스님 모두 증가했지만, 사미와 사미니는 감소했다. 승려교육기관 입학 학생은 대부분 감소했지만, 불교어산작법학교 입학생은 200% 증가했다. 신도전문교육 수료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파라마타청소년협회 조직 및 회원 또한 늘어났다. 조계종이 7월 11일 불기 2550(2006년 통계자료집을 공개했다. 통계자료집은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사찰 증가...공할·사실사모 두=조계종 전체 사찰은 2393개로 전년 대비 25개(1.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할은 894개로 11개(1.25%), 사실사모는 1499개로 14개(0.94%) 늘어났다. 교구별로 보면 직할교구가 13개, 수덕사 교구가 6개, 송광사 교구가 6개 증가했

다. 이에 비해 동화사 교구는 10개, 은해사 교구는 4개 감소했다.

▲스님 증가...사미·사미니는 감소=스님 또한 1만3294명으로 전년 대비 259명(1.99%) 증가했다. 비구는 5120명으로 167명(3.37%) 늘어났고, 비구니는 5033명으로 148명(3.03%) 증가했다. 그러나 사미는 1852명으로

조계종 사찰 전년비 25개·스님은 259명 증가

승려교육기관 입학생 ↓ 신도전문교육 수료자 ↑

10명(0.54%), 사미니는 1289명으로 46명(3.45%) 감소했다. 한편 승려기초교육에 특화된 행자 중 40세 이상 남행자가 전체 348명 중 36.79%(128명)를 차지해 '행자 고령화' 현상을 보였다. 여행자 또한 187명 중 36.90%(187명)가 40세 이상이었다.

▲승려교육기관 입학생 대부분 감소...불교어산작법학교 200% 증

가=승려교육기관 입학생은 동국대와 불교어산작법학교를 제외하곤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강원 입학생은 227명으로 전년 대비 44명(16.24%), 중앙승가대학은 50명으로 12명(19.36%) 감소했다. 기본선원 또한 14명으로 6명(30.00%), 율원은 25명으로 6명

(19.36%), 화림은 10명으로 5명(33.34%) 줄어들었다. 승가대학원은 2006년 12명 입학했으나 2006년에는 입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이에 비해 동국대는 44명으로 6명(15.79%) 증가했으며, 불교어산작법학교는 36명으로 24명(200%) 늘어났다.

▲신도전문교육 수료자 대폭 증가=신도전문교육 수료자는 2576

명으로 전년 대비 753명(41.31%) 증가했다. 교육기관도 64개로 5개(8.47%), 교직지도 336명으로 18명(5.66%) 늘어났다. 신도전문교육 수료자를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 신도전문교육 수료자는 117명으로 91명(35.00%) 증가했다.

충청북도(+268.19%)와 해외(+225.00%), 서울(+173.14%), 부산(+107.4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15명으로 전년 대비 184명(92.47%) 감소했다. 전라남도 또한 51.06% 줄어들었다.

▲파라마타청소년협회 조직 회원 모두 증가=파라마타청소년협회 조직과 회원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부는 12개로 2개(20.00%), 지회는 23개로 6개(35.29%), 분회는 305개로 29개(10.51%) 증가했다. 회원수 또한 지도자가 512명으로 81명(18.79%), 학생이 1만7307명으로 3532명(25.64%) 증가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전법회관 착공

조계종 신행·포교단체들의 보급 자리가 될 조계종 전법회관이 7월 11일 구중앙신도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사진>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에 위치한 구 중앙신도회관 자리에는

2008년 5월 말 완공 예정으로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의 전법회관이 들어선다. 철거식은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사회부장 지원 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백장기 명예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글=여수형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東大 “채용 진상조사사추구”

<면에 이어서> 이종욱 동국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13일 “신 교수가 임용될 당시 예술대학 소속 교수들이 학력 위조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으며 특히 미술대 소속의 한 교수는 홍기삼 당시 총장을 만나 의문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의 학력위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뒤 이사회에서 해임된 장윤 스님은 “학위가 진짜로 밝혀질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거짓 학위로 드러날 경우 임용 심사자와 홍기삼 총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7월 13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은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신 교수 채용 당시 기밀사항이 유출된 교수와 인사 팀장인 안 모 교수 등 해당 관련자들을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말하며 향후 동국대 진상 조사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주일 기자

관음사 정상화 신중총회 소집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경기 제주 관음사 교구 선거관리위원장)에 빠른 시일 내 신중총회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호법부에는 관음사 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방식을 조사해, 신중총회가 적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총회에는 지난 3월 제출된 선거관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7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본과회의실에서 제177차 회의를 열고, 관음사 교구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미륵불교 중보제사 자매결연

(사)한국 미륵불교(총무원장 송봉)는 7월 4일 종정 덕법, 총회회장 만오, 선원장 정강, 예경원장 도형 스님 등 종단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절강성 에 위치한 보타산 보제사(망장 계연)와 자매결연식을 거행했다.

자매결연은 ‘한, 중 양국 불교는 상호간 친선을 도모하고, 경건교류 및 국제 교관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세계 불교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김현우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36호 7면 기사 제목 중 ‘뻘어 나가길’을 ‘뻘어 나가길’로 고칩니다.

조계종, 전국 본·말사 주지연수 실시

“사찰·종단 홍보전략 필요”

“여러분 ‘방기방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7월 12일 김포 중앙승가대 지해관. 박준영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의 질문에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 몇 명은 앞웃 모를 듯한 미소를 짓는다. 잠시 후 어디선가 “예, 압니다”란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면 ‘ㄱ크크크’과 ‘ㅇㅇ’은 아십니까?”

다시 침묵. “현대 사회는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미디어 시대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승가대에서 다권역(신홍사, 월정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수덕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을 대상으로 조계종 전국 본·말사 주지연수가 개최됐다.

첫째날 ‘사찰·무행정’에 대한 통합강의에 이어 둘째날은 △사찰인지도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전략 △미디어 시대! 사찰홍보(포교)의 모든 것 △어린이·청소년 포교, 국가정책을 공략하라! △실현사례로 본 사찰사회복지사업 성공전략 등 4가지 주제로 분반교육이 이뤄졌다.

김포=남동우 기자

특히 올해에는 사찰홍보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박준영 교수는 ‘불교와 미디어’ 주제 강의에서 “단순히 교세를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연기, 무아, 동체대비의 대원실현 수단이 불교미디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원종법에 근거한 불교 미디어연구소를 설립해 미디어 정책 전략을 연구하고, 미디어 교육 방안을 개발하며,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무원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사찰 홍보를 위해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불자로서 주인의식을 고취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대사회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강하게 됐다”는 지훈 스님(영광석명사 주지)은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 미디어 환경이 열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강경> 통일 한문·한글본 편찬 추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종단 소의경전인 <금강경>과 <반야심경> 통일 한문·한글본 편찬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정확한 판본을 선택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한문본 <금강경>을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본 <금강경>을 편찬·보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한국불교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 한글번역본 간행도 진행한다.

이 사업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조명하고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학연구소는 7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강경> 통일 한문·한글본 편찬을 위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종단 소의경전 편찬의 당위성과 <금강경>의 교학적 위상’을 주제로 열리며,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종단 소의경전 <금강경>·<반야심경> 통일 한문·한글본 편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기초 강연한다.

또 김진국 동국대 교수가 <금강경>의 교학적 위상과 조계종, 김호기 동국대 강사가 ‘종단 소의경전 편찬을 위한 <금강경>의 판본 고찰’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우진 스님(통도사 강주)과 각목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이 논평을 한다.

남동우 기자

천태종-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교류 협의서 체결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회장 염소문, 국가종교사무국장은 7월 4일 중국 베이징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천태종-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교류협약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교류협정서에서 △천태

종 정신을 소개하는 중국어판 책자 1만여 권 출판 후 중국 대학과 사찰, 도서관 등에 기증 △중국불학원과 금강대 간 유학생 교환 △중국불교문화연구소와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소 간 교류 등에 합의했다.

김현우 기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철석, 백중, 개인 다큐 및 동영상 자처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강의 및 법문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 / 동아TV 촬영감독, 강연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대흥사 주지후보 범각 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 후보에 범각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대흥사는 7월 12일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현당에서 신중총회를 열고 단독 인후보한 범각 스님을 만장일치로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1976년 사미계, 84년 귀족계를 수지한 범각 스님은 총무원 사회국장, 대흥사 총무국장, 11대 중앙총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초심회계위원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원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대피어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대피어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야문 www.yosiamun.com

부식지사 : (051)632-008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행요강을 준수한다.

성명서

종립 동국대학교 재단은 신정아 교수 불법 채용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중앙총회 종책모임 화엄회와 무량회 일동은 최근 방송과 중앙·지방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학위가 위조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이사장 영배스님) 인사검증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불·편법을 동원하여 교수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백년전통을 지닌 종립 동국대가 다수 이사의 압력적 횡포 앞에 재단행정이 전횡되고 대학의 인사행정의 부실을 초래해 재단과 대학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습니다.

동국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장윤스님에 대해 이사회 해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신정아교수 특별채용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박사학위가 위조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아 책임을 묻은 조치라고 하였으나 최근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장윤스님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수채용에 있어서 결의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관련 검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이사회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직책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이사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장윤스님을 해임, 명예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종립대학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장윤스님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자 재단이사는 신정아교수의 학위위조주장 때문이 아니고 끊임없이 학교 분란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사회해임을 결의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몰염치한 처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주체들은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동량들을 배출하라는 사명감을 종도들이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도들의 염원을 잘 받들어 종립대학의 위상을 높여야 할 이사진들이 학술적·도덕적 비리가 있는 사람을 옹호하고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이사를 배척·매도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종단적 차원의 책임을 물어 우리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바로 세우고 21세기에 걸맞는 교육지표를 설정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엄회와 무량회 일동은 빠른 시일 내에 정찰을 통해 종립 동국대가 새로이 거듭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 음

- ◆동국대학교 이사장 영배스님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에 누를 범한 재단의 책임자와 관련임원, 그리고 학교행정의 책임자는 장윤스님과 전종도에게 공개사과하라.
- ◆장윤스님의 이사회서 원천 복지를 촉구하며 재단임원진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
- ◆감시원과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사와 함께 방지책을 마련하라.
-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와 총무원 호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원총회에 의해 엄중히 처리하라.

불기 2551년 7월 09일

제 14대 중앙총회 종책모임 화엄회 무량회 일동